



“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
민병준 한국ABC협회 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의 가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은 ABC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나라의 ABC제도 정착을 위해 소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ABC제도의 정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광고주의 밤-2009 KAA Awards 시상식'에서는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 좋은 모델상, 좋은 프로그램상, 좋은 신문기획상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에는 민병준 한국ABC협회 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KAA Awards의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익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민병준 한국ABC협회 회장은 1961년 합동통신에 입사, 합동통신 부사장, 두산개발부회장, 두산유통 부회장 등을 거쳐 기업인으로서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1995년부터 작년까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 조직위원장, WFA 세계광고주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부회장, 제1기 2기 방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내 광고 홍보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광고의 자유와 광고주의 권익보호, 그리고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에는 이승기, 손담비 씨가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은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모델, 소비자 호응도와 친화력이 높은 모델, 모델로서 프로정신이 투철한 모델, 광고외적인 면에서도 타의모범이 되는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승기 씨는 요즘 최고의 주기를 울리며 가수 겸 연기자 등 만능엔터테이너로 활동하면서 국민훈남 이미지를 통해 삼성전자 지펠아삭김치냉장고, 서울우유, 웅진식품 허늘보리, 하이트맥주 맥스 KB금융그룹, 농심 동치면 등의 모델로 활약했다. 한편 여자부문 좋은 모델로 선정된 손담비 씨는 색소향과 세련된 이미지로 삼성전자 애니콜 햅틱 이블레드, 롯데칠성 오음의차 천미썬차, 엔프리카, 도미노피자, 제일모직 비폴린 등의 모델로 활동하며 브랜딩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손담비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너무 큰 상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릅니다.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 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저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
이승기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출연한 광고를 여러 광고주들을 모신 가운데 보게 되니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부터) 주홍 대상 상무, 장성지 금호아시아나 전무, 이광석 현대산업개발 상무, 임대기 삼성 전무, 김명진 현대기아차 부사장, 김명수 LG전자 사장, 박정규 동서식품 전무

